

저자 소개

2021년에 실시된 **2022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기전자공학부 합격생**입니다.

2021 논술에서 떨어지고 공부 방법을 바꿔 2022 논술에 합격했습니다.

1등급 턱걸이하던 학생이었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꼭 봐야 하는 이유

2020년은 교육과정 개정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년도에 시행된 21논술부터, 그 이전의 시험들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엔 연세대가 고등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는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21논술-22논술-23논술 순으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논란은 많지만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들도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4논술의 난이도 또한 낮아질 겁니다**. 게다가 24논술은 마지막으로 과학 논술이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학 논술의 난이도는 지금까지처럼 쉽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미 쉬웠기 때문에 더 쉬워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앞서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제 자체의 난이도이지 시험의 난이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걸 조절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늘리거나, case 분류 문제 등 다른 방법으로 논술 시험 자체의 난이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이 책에선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과, 기출을 분석하며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봐야 할 사람과 보면 안 될 사람

일단 **과탐 II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는 학생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학을 고정 96점 이상 받는 학생은 과학 논술을 버리고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과학 논술의 난이도가 매우 낮고, 24논술은 마지막 과학 논술인 만큼 난이도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100점 중 40점의 배점에서 II과목이 차지하는 점수를 포기하고 합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과탐 II과목의 주요 개념을 한 바퀴 돌릴 시간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는 건 수능을 볼 만큼 공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출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원들의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학 100점 맞는 학생이 붙는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저는 항상 1등급에 턱걸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1~2문제는 항상 버리고 검토나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이 2등급 이상이라면 누구나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연대 논술은 상대적으로 준비할 것(과탐 II과목, 확통, 기하)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할수록 당연하게 고득점을 맞게 됩니다.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p.s. 특히 재수를 결심하고 피시방이나 가는, 수학만 잘하는 현역들(제 얘기입니다)은 연대 논술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